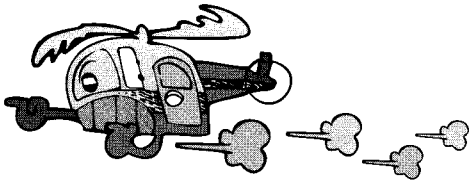


긴급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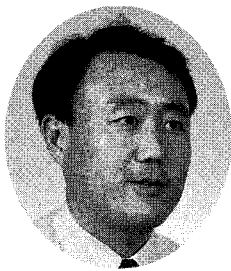


→ 눈앞에 다가온 WTO 뉴라운드 협상

WTO 산맥 넘지 못하면

농업의 장래 어둡다

협상결과 '농가경제·식량자급률·경제성장' 등에 영향 클 듯
'농업경쟁력 제고·농가경제 안정' 위해 적극적 농정대책 펴야



한 두 봉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이 1999년 11월 30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 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업과 서비스 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서 논의하기로 한 자동협상의제(built-in agenda)이다. 시애틀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뉴라운드의 구체적인 협상방식과 범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시애틀 각료선언문 초안을 둘러싸고 농업분야의 수출국과 수입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UR협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WTO 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농업 전문야' 협상 결과에 영향 받을듯, 쌀이 변수

WTO 차기 농산물 협상에서 시장 개방 확대가 품목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쌀 시장 개방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UR 협상에서 한국은 쌀에 대해 특별취급조항을 적용받아 관세화가

유예되었고 최소시장접근(MMA)에 의해 쌀을 수입하게 되었다. 한국은 개방 초기 년도인 1995년에 기준 년도 국내 소비량의 1%에 해당되는 51천톤을 수입하고, 2004년에는 소비량의 4%인 205,228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정부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MMA로 수입되는 쌀의 용도도 가공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쌀 재배면적은 1998년 1,059천ha에서 2010년의 경우 MMA로 소비량의 8%가 수입되는 경우에는 756천ha로 전망되며 자급률은 약 90%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쌀의 관세화 유예에 실패하여 UR협상의 선진국 개방조건인 관세율을 6년간 36% 감축하는 경우 2010년 재배면적은 686천ha로 전망된다. 생산량은 1998년 5,097천톤에서 3,369천톤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 결과 쌀의 자급률은 1998년 105%에서 76%로 급격히 감소될 전망이다.

쌀 관세화가 농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차기 협상에서는 우선적으로 쌀의 관세화 유예를 확보하기 위해 협상 능력을 최대한 제고시켜야 한다. 관세화로 쌀을 수입할 경우에는 환율과 국제가격의 변화에 따라 쌀 농가의 소득이 크게 변동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와 소득안정 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보리에 있어서는 UR협상의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할 경우 재배면적은 1998년 82천ha에서 2010년 33.5천ha로 크게 감소하여 자급률은 56.4%에서 15.4%로 급감할 것이다. 보리는 MMA 수입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곡류에 비하여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가공용과 사료용 보리의 수입이 빠른 증가 추세를 보여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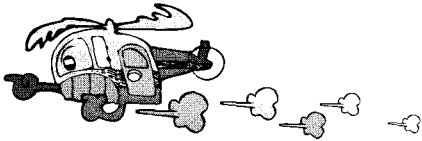
전망된다.

대두도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하면 재배면적은 1998년 99.9천ha에서 2010년 51.1천ha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자급률도 1997년 8.6%에서 2010년 3.1%로 감소될 전망이다. 국산 대두는 대부분 두부, 콩나물 등의 식용으로 소비되는데 점차 식용에도 수입산 대두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통과정에서 국산과 수입산 대두를 소비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지제를 강화하여 식용 대두 시장을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양념 채소류는 지난 UR 협상에서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으로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고율의 관세와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으로 시장개방의 영향이 미비하였다. 그러나 양념채소류의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고 품질면에서도 그 차이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관세의 대폭적인 감축은 국내 양념채소류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마늘의 경우 UR 협상의 선진국 수준인 관세의 36%가 6년간 감축될 경우 재배면적은 1998년 37.3천ha에서 2010년 22.4천ha, 자급률도 92.1%에서 37.4%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파와 고추에 있어서도 선진국 수준의 개방시 자급률은 1998년 98.3%, 83.5%에서 2010년 74.1%와 62.8%로 감소될 전망이다.

과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수입여건과 기호 등이 맞지 않아서 수입되지 않는 생과가 많았으나 국제시장의 가격으로 볼 때 차기협상에서 수출국들의 개방요구 수준이 높을 것이다. UR협상의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할 경우 포도의 재배면적은 1998년 29.9천ha에서 2010년 15.4천ha, 자급률도 96.8%에서 43.1%로 개방 파급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사과 재배면적은 1998



년 34.7천ha에서 2010년 24.3천ha, 자급률도 100.4%에서 80.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감귤과 배의 자급률도 1998년의 88.2%, 100.1%에서 2010년 62.6%, 88.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과수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개방의 우선 순위를 정해본다면 배, 사과, 감귤, 포도의 순서일 것이다. 특히 칠레와의 자유무역지대(FTA) 협상에 따라 포도의 경우 상당한 양이 수입될 것이므로 최근 증가추세를 보였던 국내 포도생산의 점진적 구조 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가격차가 큰 참깨는 UR협상에서 높은 관세상당치를 확보하여 국내 시장에 피해가 적었다. 그러나 참깨는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의 10배 수준으로 수입 자유화가 실현될 경우 국내 생산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관세 감축 수준으로 개방될 경우 참깨의 재배면적은 1998년 52.8천ha에서 2010년 18.3천ha, 자급률도 36.8%에서 10.8%로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축산물의 경우 UR협상에 따라 국내 시장이 상당부분 개방된 상태이다. 돼지고기는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쇠고기는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다. UR협상에 따라 쇠고기의 경우 현행시장접근분량(Current Market Access)이 1993년 99천톤에서 매년 수입쿼터를 2만톤씩 늘려 2000년에는 225천톤으로 확대됨으로써 개방화는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 양허관세율은 1995년 43.6%에서 매년 0.4%포인트씩 감소하여 2004년에는 40%가 될 것이다. 돼지고기는 1997년 7월 1일부터 양허관세율 33.4%를 시작으로 매년 1.2%포인트씩 감축하여 2004년에는

관세율을 25%로 낮추기로 되어있다. 닭고기는 1997년 7월 1일부로 양허관세율 30.5%를 시작으로 매년 1.5%포인트씩 감축하여 2004년에는 관세율이 20%가 되도록 약속하였다.

UR협상의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할 경우 쇠고기 사육두수는 1998년 2,383천두에서 2010년에는 1,542천두로 1998년 대비 36%정도가 감소될 전망이다. 생산량은 1998년 272천톤에서 2010년에는 157천톤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 결과 쇠고기 자급률은 1998년 79.2%에서 2010년에는 22.7%정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시 생산량은 1998년 224.7천톤에서 2010년에는 180.5천톤 감소될 전망이며 자급률도 94%에서 38%정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돼지고기는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자급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수출 품목이다. 사육두수는 1998년 7,544두에서 2010년에는 12,699두로 증가할 전망이며 1인당 소비량도 1998년 16.7kg에서 2010년에는 약 23kg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축산물 생산비는 주요 수출국에 비해 사료비, 인건비 등 모든 면에서 높아 국제경쟁력이 낮은 상태이다. 사육규모의 대형화와 관리시설의 자동화를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가 높고 고품질의 안전한 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드를 정착하여 국제시장도 공략해야 할 것이다.

'수입개방확대' 농가경제 치명적 타격 줘

WTO 차기 농산물 협상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수입개방을 확대할 경우 주요 16개 농산물의 총 생산액은 2010년까지 현재(1998년)의 65%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생산액은 약 6조원이나 감소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쌀 생산액은 관세화로 개방할 경우 현재의 절반 이상인 4조 8천억원이 감소하여 쌀 농가가 대부분인 우리 농가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차기 협상에서 현행 개방수준(2004년 MMA 4% 수입)보다 개방 폭을 확대하여 2010년에 MMA(최소시장접근물량)를 8%까지 늘린다면 2010년 쌀 생산액은 현재에 비해 1조 4068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최소시장접근을 포기하고 관세화(MMA 4%+관세 36% 감축)로 개방한다면 쌀 생산액은 4조 8천억원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쌀 이외 품목의 2010년 생산액은 선진국 수준 개방 시(관세를 6년간 36% 인하) 현재에 비해 1조 1456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액 감소는 마늘(5952억원), 포도(3448억원), 쇠고기(3144억원), 감귤(2044억원), 참깨(1789억원), 대두(1489억원), 사과(1353억원), 닭고기(1219억원), 고추(807억원), 보리(715억원) 등의 순이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돼지고기는 생산액이 9261억원 증가하고 배, 양파 등은 생산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액 감소 비율이 큰 품목은 참깨(-79.8%), 포도(-67.8%), 마늘(-55.6%), 대두(-54.3%), 보리(-4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WTO 차기협상에서 농산물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하면 농업부문은 2004~2010년 연평균 -

2.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로 감소될 것이다. 농가 판매가격은 2005~2010년 동안 현 개방수준에서는 연평균 4.1% 정도 상승하지만 선진국 수준 개방시 0.8%로 상승률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농업취업자도 1998년 234만명에서 169만명으로 감소되어 취업자 중 비중은 12.2%에서 6.8%로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농업 취업자 감소보다 생산액 감소가 더 커서 취업자 1인당 소득은 비농업부문의 34.3%에 불과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농업취업자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농업투자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농가경제가 급속히 위축될 전망이다. 농업투자는 현 수준 개방에서는 2005~2010년 동안 연평균 5.2% 성장하지만, 선진국 개방시 -1.1%로 크게 위축되어 농업의 장기 성장잠재력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따라서 농업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농업부문은 더욱 급격히 위축되어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WTO 차기 협상 결과는 농가경제, 식량자급률, 경제성장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의 협상 교섭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농업투자과 직접 지불제의 확대 실시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보험제도의 도입 등 적극적인 농정대책이 요청된다. **농약정보**